

8. 중국, 새로운 길을 가다

박세길_새사연 이사 | newroad2015@naver.com

여러 모로 한국 사회의 틀과 기초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도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대 이후 과거의 전통과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시도는 다양한 형태의 혁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세계혁명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인간의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해 줌과 동시에 세상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줄 것이다.

시진핑 체제 2기 출범을 보는 언론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시진핑은 신시대를 선언하면서 세계 선두 국가를 목표로 내걸었다. 미국마저 재치고 세계 최강 지위를 넘보겠다는 의지이다. 이를 두고 언론은 덩샤오핑 시대에 작별을 고한 것으로 평가했다. 덩샤오핑이 내건 목표는 중등 국가였기 때문이다. 작별의 지점은 또 있다. 덩샤오핑은 빈곤 타파를 내세운데 반해 시진핑은 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국 이후 중국이 걸어 온 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코 단선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오늘의 중국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시행착오

중국은 1955년경부터 전격적으로 농업 집단화를 추진하였다. 다만 토지 소유에 대한 농민의 열망이 뿌리 깊은 점을 고려하여 국영농장이 아닌 50명 정도 농민을 농업생산협작사로 묶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농업 집단화는 기대했던 농업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1952년에서 1957년 사이 인구는 30% 정도 늘어났지만 정부 곡물 징수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농업 생산성이 정체 상태에 빠져든 것이다. 공업화가 미약한 조건에서 기계화 등이 제때에 추진되지 않은 탓도 있었다. 무엇보다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열망이 남아 있으면서 근로 의욕이 감퇴한 게 주효했다.

마오쩌둥은 농민에게 남아있는 소자산가 기질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 마오쩌둥은 인민 개조와 함께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목

표 아래 인민 공사를 중심으로 전대미문의 실험에 착수했다.

인민공사는 노동자, 상인, 학생, 병사가 일체화된 체계로서 모든 생산수단은 공사 소유였다. 개인이 가졌던 조그만 땅도 모두 인민공사에 귀속되었다. 식사도 인민공사에서 운영하는 커다란 식당에서 함께 하도록 하는 등 가능한 한 가족을 뛰어넘는 공동생활 영역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모든 노동은 공사가 배분하고 통제했으며 임금은 노동성과에 따라 지급하였다. 아울러 인민공사는 교역, 조세, 회계 등 경제 활동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기능인 군사와 보안 업무까지도 떠맡았다. 한마디로 인간 생활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공산주의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1958년부터 인민공사를 기초 단위로 대약진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대약진운동은 조속한 시일 안에 영국을 추월하여 미국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대약진운동을 장식하던 온갖 구호들은 허구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대약진운동이 시작된 다음 해인 1959년부터 농산물 생산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인민은 지치다 못해 냉담해졌다. 수송망은 파괴되었고 덩달아 공업도 침체되었다. 그 결과 1960년의 국민총생산은 대약진운동이 출발할 때의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대약진운동은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일거에 모순을 제거하고 유토피아로 직행하려는 욕심은 망상임이 드러났다. 환경이 달라지면 인민이 소자산가 기질에서 벗어나 공산주의 인간형으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 역시 허구에 불과했다. 대약진운동 실패 책임을 지고 마오쩌둥은 2선으로 물러났다. 덩샤오핑이 당 총서기를 맡고 류샤오치가 국가 주석을 맡는 것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졌다. 덩샤오핑은 대약진운동 실패 과정을 목도하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 욕망을 지닌 존재라고 결론 내렸다. 덩샤오핑 사고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개인 욕망을 추구하도록 허용해야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어졌다.

덩샤오핑 체제는 인민 대중이 각자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개인 경작지를 허용했고 자유시장을 활성화시켰으며 독립채산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인민공사 기능들은 국가행정기관으로 이전시켰다. 참담한 실패 후과로 이전과는 정반대 방향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인민을 차분히 준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행정 기구 중심으로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면서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과 정부, 군에 자리 잡은 관료집단은 일반 노동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상층 계급이 되려고 노력했다. 온갖 불편부당과 부조리가 양산되면서 젊은 청년들을 사이에서 불만이 넘쳐흘렀다. 사태가 예사롭지 않게 흘러갔다.

국가적 대재앙, 문화대혁명

정치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던 마오쩌둥은 사태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다. 마오쩌둥은 먼저 덩샤오핑이 소홀히 하고 있던 군부를 일거에 장악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농민들을 모아 새로 군대를 만들겠다는 마오쩌둥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정리시켰다.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 수상 협조를 얻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베이징으로 불러 모았다. 학생들은 100만 명 단위로 천안문 광장 집회를 거치며 홍위병을 결성했다. 홍위병 손에는 국방장관 린뱌오가 주도해 만든 <마오쩌둥 어록>이 쥐어져 있었다. <마오쩌둥 어록>은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며 홍위병들을 집단 최면 상태로 몰아넣었다. 1,100만 명에 이르는 홍위병들이 문화대혁명 전위 투사 역할을 했다.

홍위병들은 4구(四舊 : 낡은 이념과 사상, 습관 및 관습)를 대표한다고 간주된 사람들과 사물들을 난폭하게 공격하였다. 극단적인 광기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루어졌고 곳곳에서 테러가 난무하였다. 사찰 등 각종 문화재들은 낡은 사상의 표본이라 하여 무참하게 파괴되었으며 혼란의 와중에서 대학과 학교는 여러 해 동안 문을 닫아야 했다. 이 모든 과정은 합당한 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마오쩌둥 이름으로 처단한다는 말 한마디가 법을 대신했다.

기존 당 지도부는 적위대를 내세워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곳곳에서 적위대와 홍위병 간에 화기를 사용한 전투가 벌어졌다. 비슷한 시기 21개 지방에서 농민들이 홍위병을 향해 격렬한 공격을 가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문화대혁명은 사실상 내란 상태로 빠져들었다. 결국 군부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상황이 수습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군부 주도권을 확고하게 해주고 말았다. 권좌에 복귀한 마오쩌둥은 1968년 가을에 홍위병을 해산시키고 사태 수습에 돌입하였다. 홍위병을 포함한 젊은이들은 대거 농촌으로 하방(下方)되었다. 이어서 1969년 4월 새로운 권력 구조를 출범시키기 위한 9차 전당대회가 개최되었다. 전당대회는 국방장관 린뱌오를 마오쩌둥 후계자로 명시했다. 문화대혁명은 1974년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비로소 10년 대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관료화된 현실 사회주의와 권위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언더머리를 느끼고 있었던 서구 좌파 지식인들은 문화대혁명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자 애썼다. 그들이 보기에 문화대혁명은 마르크스주의 본래 취지에 맞게 대중의 자발성에 기초한 인간적 사회주의를 창출하는 과정이었다. 그에 따라 수많은 서구 지식인들이 문화대혁명 이념을 소개하는 데 열을 올렸으며 “모든 반란은 정당하다”(造反有理)는 마오쩌둥 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지성의 모범은 시험 답안지 귀퉁이에 자신은 공장 노동자로서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는 메모를 적어 제출한 중국 대학생이었다. 덕분에 이 대학생은 나중에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1977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문화대혁명을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10년간의 재앙’으로 규정했다.

개혁개방의 길

문화대혁명과 함께 밀려난 덩샤오핑은 오랫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덩샤오핑을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주자파’ 우두머리로 지목하면서 죽여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장래를 위해 살려두어야 한다면 덩샤오핑을 두둔했다. 비록 정치적 입장을 달리 하기는 했지만 인물 보는 안목에서만큼은 매우 탁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덩샤오핑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 지난날 실험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곱씹었

다. 길고 긴 성찰의 시간을 가진 것이다. 그 과정을 거쳐 향후 개혁개방을 성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었다. 1970년대 후반 마오쩌둥 사망과 함께 권력 핵심으로 떠오른 덩샤오핑은 오랫동안 성숙시켜 온 개혁개방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방식이 달랐다. 조급하지도 않았고 국가 기구에만 의존하지도 않았다. 덩샤오핑은 철저하게 현장에서 답을 찾는 관점을 유지했다.

덩샤오핑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농촌개혁이었다. 당시 인구 80퍼센트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던 상황에서 농민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은 개혁개방의 성패를 가늠하는 절대적 요소였다. 덩샤오핑은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알려진 쓰촨성과 안후이성 작은 농촌 지역으로 내려갔다. 애써 빈곤 지역을 택한 것은 그 곳에서 성과를 이루어 냈을 때 파급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였다. 덩샤오핑은 장시간 농민들과 동고동락하며 농촌개혁의 해법을 찾았다.

덩샤오핑이 찾아낸 농촌개혁 핵심은 ‘포산도호’(包產到戶), 즉 토지에 대한 소유는 기존 공유제를 유지하되 가족 단위 생산을 한 다음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와 공사에 바치고 나머지를 가족 몫으로 하는 것이었다. 일종의 토지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라고 할 수 있었다. 새로운 모델은 즉각적으로 빛을 냈다. 안후이성을 급습한 극심한 가뭄에도 사상 최고 수확량을 기록했다. 시범 사업이 성공을 거두자 덩샤오핑은 가족별 생산도급제를 중국 전역으로 확산시켰다. 농민들은 개혁 모델을 적극 지지했다. 농업 생산량도 빠르게 증가했다. 농촌 개혁은 안정적으로 마무리됐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의 접목을 위한 개혁개방 정책 관련해서도 홍콩에 인접해 있는 선전 등 몇몇 해안 도시로 내려가 새로운 모델을 실험했다. 역시 성과가 나타나자 이를 해안의 여러 도시를 확대 적용한 뒤 다시금 내륙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그 유명한 ‘점 선 면 전략’을 선보인 것이다. 이런 전략은 두 가지 효과를 안겨다 주었다. 먼저 충분히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화시켰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적었다. 인민을 점차로 준비시키며 진행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었다. 현장에서 인민과 함께 찾는 해답이었기 때문에 인민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낼 확률도 높았다. 거대한 중국을 비교적 안전하게 개혁개방으로 이끌었던 비법이 여기에 있었다.

G2로 부상한 중국

성공적인 개혁개방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적 요소와 시장 경제의 결합은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장했다. 토지공유제는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낮추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약화되기는 했지만 주택, 교육, 의료 등 분야에서 국가 지원은 임금을 낮은 수준에 묶어둘 수 있도록 하였다. 수출이 급속히 확대될 수 있었고 외국자본의 폭발적 유입이 가능해졌다.

외국자본 유입이 크게 늘었으나 자본 대외 종속을 우려할 수준을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개혁개방 초기 유입된 외국자본 80퍼센트 정도는 화교자본이었다. 말하자면 고향을 찾아온 자본이었다. 일본과 맞먹을 정도 경제력을 지닌 전 세계 화교 네트워크는 중국 경제 발전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 발전의 강력한 파트너가 된 나라는 한국이었다. 중국 지도부는 한국 산업화 모델을 적극 벤치마킹했다. 중국이 채택한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도 한국 경험을 차용한 것이었다. 한국은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한 투자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 교역의 주요 파트너이기도 했다. 최근까지 중국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었다. 중국산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 수입한 것이었다. 중국을 찾는 관광객 절반 정도도 한국인으로 채워졌다.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7~10퍼센트에 이르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한 GDP 규모는 이미 미국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 3조 달러를 넘어서는 외환 보유고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자본 능력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한다. 유럽에서 공장과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거의 중국 자본이 매입하고 있다. 중국이 유럽을 돈으로 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1840년 아편전쟁을 계기로 유럽 세계에 치욕적으로 굴복했던 중국이 대역전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성공 이면의 부산물이 심상치 않다. 과거 마오쩌둥 시대에 중국은 모두가 가난하다는 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은 가장 불평등한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 해안 도시와 내륙 지방 사이 격차 또한 큰 문제로 부상해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위층 부패 도 중국을 위협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델

중국 체제를 이해하는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다. 워낙 큰 나라이고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다 보니 어떤 식으로 접근해도 다 들어맞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 같은 나라라고 해도 충분히 먹혀들어 간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는 국가자본주의라는 그럴듯한 명칭을 붙여 주기도 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중국 특색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중국공산당이다. 중국공산당은 당원 수만도 9천만 명이 넘는다. 웬만한 나라 인구수보다 많다. 중국공산당은 사실상 유일한 정치적 실체이다. 중국 사회 전체가 공산당 통제 아래 놓여있다. 중국 공산당이 신호를 보내면 인구 13억의 거대한 나라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움직인다. 한국 사드 보복 의지를 드러내자 일제히 한국 마트 발길을 끊었고 한국 여행도 포기했다. 중국 정치를 움직이는 원리는 현능주의(賢能主義)이다. 중국공산당 내에서 각 단계마다 엄격한 검증을 거친 지도자들이 중국을 이끈다. 현능주의에 대한 중국인들 지지는 매우 높은 편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기 정치 체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나라도 중국이다.

서구 민주주의 제도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국인들 사고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인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강박관념이 하나 있다. 분열에 대한 두려움이다. 중국 역사는 분열과 통합을 반복해 온 과정이었다. 중국인들은 뼈격하면 언제든 지 분열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거대 중국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중

국공산당뿐이다. 중국인들은 공산당이 존재해야 하나의 중국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곳을 통제하는 나라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까지도 보이지 않게 당의 통제가 미치고 있다. 공산당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종합 연출하는 나라이다. 중국은 강력한 공산당의 통제력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요소를 거침없이 자기 안으로 흡수해 낼 수 있었다. 바로 이 점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핵심이다. 그 어느 나라도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중국에서만 작동 가능한 모델이다. 